**UBS Equity Research**

* 1. **Psychometric Test (11/29 Fri.) : 소요시간 1.5H+**
     + 3Part였으며, UBS Sample Test대로 나옴. 시간도 여유롭고 문제도 Deutsche Bank, BCG와 비교해서 가장 쉬움. 마지막 Part3만 조금 시간이 모자를 수 있음.
     + 각 파트마다 시험장에서 Sample Test를 실제 시험보는 것처럼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, 굳이 그렇게 연습할 필요도 없는 듯하며 시간이 길어져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임.
  2. **Interview (12/3 Tue.): 소요시간 1H / 한국어 + 영어면접**
     + Equity Research Dept. 헤드분과 첫 30분 면접 진행함. 들어오자마자 영어로 자기소개 시키더니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소개 하라고함.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 자기소개 방식이라 어디서 태어났고 주절주절 떠들었더니 영어 잘하네라고 하심.
     + 독일어랑 중국어 한마디씩만 해봐라.
     + Chess 잘 두나? Knight랑 Bishop 중 무엇을 선호하는가? (한국어)
     + 아버지 뭐하시나?
     + VC와 PE에서 각각 Working Hour가 어떻게 되었는가?
     + Valuation 어떻게 하나? (여기부터 영어)
       - Comps랑 DCF로 나누어 설명드렸더니 Okay 하심
     + DCF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?
     + Free Cash Flow 어떻게 구하나?
     + 왜 KFAC에서 부회장 밖에 못하고 있나?
     + 군대에서 뭐한거냐? (다시 한국어)
     + 너는 왜 Finance를 하고 싶은가?
     + 너의 장/단점에 대하여 얘기해봐라. 끝.
     + 궁금한 것 있나?
       - 왜 Research 부서에서 일하세요? 라고 물어봤더니 i) Research Tool 및 Analyzing 기법이 완벽해져가는 걸 느끼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, ii)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본인의 commitment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하셨음.
     + Head분이라 그런 지,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얘기하는 중간에 많이 cut하고 본인 질문을 다시 던지심. 조금이라도 장황하게 얘기가 길어지면 옹알이하지 말라고…… 면접 Feedback 해달라고 했더니 남자답고 배짱있는 것 같아서 맘에 들고 하고 싶은 말 잘 전달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심.
     + 이준호 과장님과 뒤에 30분 면접을 진행했는데, Head분한테 오케이 결정을 받고 온 것 같았음. 본인이 ‘사실 저는 면접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같이 일하게 될 친구 어떤 지 보고 오라 그래서 왔어요’라고 했음.
     + 자기소개 해보세요 (여기서부터 영어)
     + 전에 인턴쉽할 때 working hour어땠으며 harsh하게 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
     + KFAC에서 Research Report쓰면서 어떤 Sector가 가장 흥미로웠는 지, and why
     + Explain the DCF Valuation Method
     + Research에 지원한 이유는?
       - Research 가고 싶은 생각 없고 fundamental skillset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고 했는 데 본인도 그랬다고 끄덕끄덕하심.
     + ‘백산’에 대해서 리서치 했다고 하는 데 향후 전망이 어떤 것 같나
     + ‘동원 F&B’는 도대체 어떻게 DCF를 한 것인가?
     + 카이스트 친구들은 금융에서 어느 부서에 관심이 많나?
     + 궁금한 것 있나? (한국어)
       - 왜 Research 부서에서 일하시나? 라고 물어봤더니 Research 부서가 어떻게 돈을 버는 지 역으로 질문하셨고,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/반기별로 주기적인 외사 Research House를 ranking 하며, 이 순위에 따라 Trading Desk에 들어오는 물량이 결정되므로 Institutional Client의 Needs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줬고, 본인은 일하는 이유 관련하여 별 생각 없다고함.